

晚唐五代의 唐代詩人論 研究 *

金 俊 淵**

<目 次>

I. 序 論	2. 元稹·白居易論
II. 本 論	3. 李賀論
1. 李白·杜甫論	III. 結 論

I. 序 論

일반적인 文學史에서는 文宗 太和 연간(827~835) 으로부터 唐나라가 멸망한 907년까지를 「晚唐」, 그 이후로부터 宋나라가 건국된 960년까지를 「五代」라 칭한다. 唐나라는 晚唐으로 접어들면서 국력이 급속도로 약화되어 여러 문인들의 작품에 感傷的 情調가 팽배했다.¹⁾ 晚唐 前期의 詩壇에서는 杜牧과 李商隱이 비교적 충실한 내용과 독특한 풍격으로 일가를 이루었으나, 晚唐 後期와 五代에 들어서는 사회혼란이 가중되면서 그에 반응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韋莊·韓偓·吳融 등이 염정적이고 아름다운 시를 짓고, 曹鄴·方干·司空圖 등이 현실도피적인 淡泊한 시를 추구했는가 하면, 羅隱·皮日休·杜荀鶴 등은 사회현실을 반영하는 시를 짓기도 했다.²⁾

* 본 논문은 2003년 인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보조에 의한 것임.

** 인제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중어중문전공 교수

1) 張毅, 《中國古代文學發展史》中冊(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3), 7 쪽

2) 李道英, 《中國文學史》第2冊(北京: 北京師範大學出版社, 1998), 318 쪽

晚唐五代에도 詩作과 더불어 창작의 이론적 바탕을 이루는 詩論이 꾸준히 나왔다. 시의 風格을 심도있게 추구한 司空圖의 《二十四詩品》을 비롯하여 類派論이라 할 張爲의 《詩人主客圖》, 詩格書인 齊己의 《風騷旨格》, 唐詩選集인 韋莊의 《又玄集》과 韋穀의 《才調集》 등은 晚唐五代의 대표적인 저술이다. 그 밖에도 杜牧의 <李賀集序>, 吳融의 <禪月集序>, 黃滔의 <答陳礪隱論詩書>, 徐鉉의 <蕭庶子詩序> 등 주목해볼 만한 글이 적지 않으나, 체계적인 저술이 아닌 단편적인 내용이라 그 동안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실정이다. 이는 唐代 전반의 詩論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데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宋代 詩論과의 연관성을 검토하는데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본고는 詩論 연구의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晚唐五代의 몇 가지 주장들을 검토함으로써 唐代 詩論의 후반을 장식했던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것이 가지는 詩史的 의미를 짚어보려 한다.

그러나 晚唐五代의 詩論을 모두 다룬다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따라서 그 범위를 좁혀 晚唐五代의 시인들이 이전 시기, 그러니까 中唐 이전의 시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 싶다. 그들에 대한 평가에서 晚唐五代 시인들이 前代의 성과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승 또는 지양하려 했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창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려 했는지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中唐 이전의 시인들 중에서도 특히 晚唐五代의 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몇몇 시인, 바로 李白과 杜甫, 元稹과 白居易 그리고 李賀에 대한 優劣論·贊反論 등의 논쟁을 통해 晚唐五代의 시인들이 時期에 따라 또는 持論에 따라 제각각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차례로 알아보자.

II. 本論

1. 李白·杜甫論

李白과杜甫의 개성이 판연히 달랐던 만큼 두 시인에 대한 존중도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관한 대체적인 상황을西浦金萬重은 이렇게 정리했다. “李白과杜甫가 이름을 나란히 했지만唐代 이후의 문인들이 편을 든 것을 보면杜甫쪽이 열의 일고여덟이다.白居易·元稹·王安石과江西詩派가 모두杜甫를 존중했고,歐陽修·朱熹·楊慎은李白的 편에 섰다.韓愈와蘇軾은 두 사람을 다 존중한 사람들이다.”³⁾ 이처럼唐宋 문인들은杜甫와李白에 대한 입장을 저마다 달리했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李杜」의 시를 바라보는 분명한 관점과 그것을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제晚唐五代 평자들의「李杜」에 대한 상이한 의견을 살펴보자.

(1) 揚杜抑李論

中唐 이후로韓愈, 元稹, 白居易 등 비중 있는 시인들이「李杜」를作詩의 모범으로 내세우면서晚唐 초기의 시인들도 다소 그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⁴⁾ 대표적인 예로「小李杜」라 일컬어진杜牧(803~852)과李商隱(812~858)의 견해를 살펴보자. 杜牧은 “李白과杜甫가 넓은 바다에 떠 있고,韓愈와柳宗元이 푸른 하늘에 닿아 있다. 근래에는 이 네 분의 군자가 고인과 기세를 닮고 있다”⁵⁾고 하고, “당대에 유명한國風과離

3) 金萬重, 《西浦漫筆》, “李杜齊名 而唐以來文人之左右袒者 杜居七八 白樂天元微之, 王介甫及江西一派并尊杜 歐陽永叔 朱晦菴 楊用修右李 韓退之 蘇子瞻并尊者也.”

4) 姚合(779~846)이 盛唐과 中唐 초기 시인 21명의 시 100수를 묶은 《極玄集》을 펴내면서李白과杜甫의 시를 배제한 예에서 보듯이, 中唐 이후의 모든 시인들이「李杜」를 추승한 것은 아니었다.

5) 杜牧, <冬至日寄小姪阿宜詩>, “李杜泛浩浩, 韓柳摩蒼蒼. 近者四君子, 與古爭強

騷의 장군으로 누가 李白과 杜甫의 단상에 오를까?”⁶⁾라고도 하여 李白과 杜甫를 나란히 존중하는 입장을 취했다. 李商隱도 論詩絕句라 할 수 있는 <漫成五章>의 둘째 수에서 杜牧과 유사한 견해를 피력했다.⁷⁾ 이처럼 杜牧과 李商隱의 시에서는 李白과 杜甫 둘 중 하나에 대한 편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杜牧이 <讀韓杜集>이라는 시에서 “杜甫의 시집과 韓愈의 문집을 읽노라니, 마치 어여쁜 마고선녀가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하구나”⁸⁾라 하여 杜甫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李商隱이 <杜工部蜀中離席>과 같이 명확하게 杜甫를 모방하고자 한 작품을 남긴 것 등에서 얼마간 李白보다 杜甫를 더 존중했던 晚唐 초기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

「李杜」중에서 杜甫를 우위에 두는 입장은 《唐詩類選》을 펴낸 顧陶(783~?)에게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唐詩類選》은 1,232수의 唐詩를 20권으로 엮은 책으로, 현재 전해지지 않고 서문만이 남아있다. 856년에 쓰여진 서문의 일부를 보자.

唐 이후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가는 예가 많았는데, 임금의 덕과 은혜가 멀리 미쳐 시를 짓는 이가 잇달아 나왔으며, 杜甫와 李白이 불쑥 튀어나와 다른 才士들이 견줄 수가 없었다.⁹⁾

이 글에서는 李白과 杜甫를 거명한 순서가 눈길을 끈다. 흔히 「李杜」라고 하는데 비해 여기서는 「杜李」라 하여 그 순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순서를 바꾼 이유가 杜甫를 李白보다 더 존중하는 뜻으로 짐작되

梁.”

- 6) 杜牧, <雪晴訪趙假街西所居三韻>, “命代風騷將, 誰登李杜壇?”
- 7) 李商隱, <漫成五章> 其二, “李白과 杜甫의 글솜씨는 대략 같아 삼라만상에 모두 두각을 나타냈다. 集仙殿과 金鑾殿에서는 오히려 쉬파리가 새벽닭을 어지럽혔다.(李杜操持事略齊, 三才萬象共端倪 集仙殿與金鑾殿 可是蒼蠅感曙鷄.)”
- 8) 杜牧, <讀韓杜集>, “杜詩韓集愁來讀, 似靑麻姑痒處抓.”
- 9) 《文苑英華》卷714, <唐詩類選序>, “國朝以來, 人多反古, 德澤廣被, 詩之作者繼出, 則有杜李挺生於時, 群才莫得而竝.”

기는 하지만¹⁰⁾, 서문만이 전할 뿐 이 選集의 전모를 알 길이 없어 단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唐詩類選》과 달리 韋莊(836~910)이 편찬한 《又玄集》은 현전하는 당시 선집이다. 昭宗 光化 3년(900)에 서문이 쓰여진 이 선집에는 初唐 宋之間으로부터 中晚唐에 이르는 145명 시인의 작품 297수를 수록되어 있다. 이 선집의 특징은 杜甫의 시 7수를 맨 처음에 싣고, 이어서 李白의 시 네 수를 실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책에 실린 杜甫의 시 7수의 면면을 보면 도대체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그 7수란 五言律詩인 <西郊>, <春望>, <禹廟>, <山寺>, <遣興>과 七言律詩인 <送韓十四東歸觀省>, <南隣> 등인데 <春望>을 제외하고는 후대에 그다지 작품성을 인정받지 못한 시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杜甫의 시를 선집의 맨앞에 내세운 韋莊조차도 杜詩의 정수를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했다는 점을 되새겨보면 晚唐 시단에 미친 杜甫의 영향도 과대평가를 경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杜甫가 실질적인 近體詩의 완성자라는 사실이 近體詩의 전성기였던 晚唐五代에 杜甫가 존중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¹¹⁾

(2) 揚李抑杜論

皮日休(843?~883?)는 <和魯望以五百言見貽>시에서 陳子昂 李白 杜甫, 孟浩然 네 사람을 추존한다고 밝히면서 李白과 杜甫를 나란히 언급했지만, 그가 존경하는 일곱 사람을 노래한 <七愛詩>에서는 시인으로 白居易와 李白만을 거론했다.¹²⁾ 皮日休는 이 시의 서문에서 “뛰어난 기세를

10) 卞孝萱는 <《唐詩類選》是第一部尊杜選本>(《學林漫錄》8集, 1983)이라는 글을 통해 《唐詩類選》이 杜甫를 존승한 최초의 唐詩選本 이라 주장했다.

11) 《全唐詩》에 한 권 이상의 시를 남기고 있는 시인의 작품을 기준으로 할 때 五言律詩(3,864수)는 五言古詩(561수)의 약 7배, 七言律詩(3,683수)는 七言古詩(193수)의 약 19배 정도 많이 창작되었다.(許總, 《唐詩史》(南京: 江蘇教育出版社, 1995), 389쪽.)

12) 皮日休, <七愛詩>, “나는 이백을 사랑하노니 그의 몸은 술벌의 혼백이었지.

擔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정한 벗어남'이 있으니 李白을 '진정한 벗어남'이라고 여긴다¹³⁾고 말하고 있어, 그가 李白의 豪邁不羈한 정신과 詩風을 찬미한 정도를 짐작하게 된다. 그는 또 <劉棗強碑>에서는 “말은 천지의 밖에서 나오고 생각은 귀신의 곁으로 드러나, 읽어보면 정신이 사방팔방으로 달려가고 헤아려보면 마음이 사해를 품게 되고, 대범하여 구애받지 않아 진실로 인간세상의 말이 아닌 사람으로는 李白이 있다”¹⁴⁾고 하여 역시 李白을 대단히 높이 평가했다.

李白을 우위에 둔 시인으로는 또 吳融이 있었다. 그는 貫休(832~912)가 편찬한 《禪月集》의 서문을 쓰면서 “당대에 시를 지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유독 李白을 첫 손에 꼽는 것은 찬미하고 풍자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서다”¹⁵⁾라고 하여 李白을 추켜세웠다. 杜甫가 비교적 歌行을 적게 창작하여 李白만큼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吳融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¹⁶⁾, 《唐才子傳》에서 그의 시를 평하여 “화려함은 남음이 있으나 典雅하고 莊重함은 부족했다”¹⁷⁾고 한 것으로 보아 그가 「沈鬱頓挫」하다는 평을 받는 杜甫의 시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後蜀 때 韋穀이 편찬한《才調集》은 특히 논란이 많은 選集이다. 唐代의 시인 200여명의 시 천 수를 수록하면서 杜甫의 시는 한 수도 신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서문을 보면 “한가한 때를 틈타 李白과 杜甫의 시집이며 元稹과 白居易의 시를 훑어보면, 그 속에는 커다란 바다가 넘실거렸고 풍류는 빼어나기만 했다”¹⁸⁾면서 李白과 杜甫를 나란히 언급했는데, 정작

입으로는 천상의 글을 토해내고, 자취는 인간세상의 나그네 되었네.(吾愛李太白, 身是酒星魄。口吐天上文, 迹作人間客.)”

13) 皮日休, <七愛詩序>, “負逸氣者, 必有眞放, 以李翰林爲眞放焉。”

14) 皮日休, <劉棗強碑>, “言出天地外, 思出鬼神表, 讀之則神馳八極, 測之則心懷四溟, 磊磊落落, 眞非世間語者, 有李太白”

15) 吳融, <禪月集序>, “國朝能爲歌詩者不少, 獨李太白爲稱首, 蓋氣骨高舉, 不失頌美諷刺之道焉。”

16) 王運熙, <晚唐文學批評三題>, 《文學遺產》1992年 第5期, 56쪽.

17) 辛文房, 《唐才子傳》卷9, “爲詩靡麗有餘, 而雅重不足。”

《才調集》에 실린 것은 李白의 시 28수뿐이다. 이 점에 대해 淸 宋思仁은 “韋穀이 문장이 피폐해진 五代에 태어나 오직 穠麗함을 잘 드러내는 것으로 당시 거칠고 저속해진 습속을 구하려 한 까닭에 晚唐의 시를 많이 신고 杜甫를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¹⁹⁾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近人 鄭健行은 行文의 편의상 李白이 나오다보니 따라서 杜甫가 나온 것이지 韋穀은 그다지 杜甫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했다.²⁰⁾ 韋穀이 어떤 이유에서 杜甫의 시를 신지 않았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므로 차치하더라도, 李白의 시 28수가 실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韋穀이 杜甫보다는 李白을 더 높이 평가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才調集》에 실린 李白의 시 28수는 《又玄集》에 실린 杜甫의 시 7수와 마찬가지로 후대의 選詩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비근한 예로 그 28수 중에서 《唐詩三百首》에 실린 李白의 시 34수와 중복되는 것은 <長干行>과 <長相思二首 其二> 단 두 수에 불과하다. <送友人>이나 <早發白帝城>같은 近體詩 명작은 물론이고, <蜀道難>·<將進酒>·<月下獨酌> 등이 빠진 「李白詩選」을 두고 眼目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晚唐五代之 시인들이 얼마간 「李杜」의 영향을 받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李白과 杜甫 어느 한쪽의 詩風에 경도되는 양상도 보였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晚唐五代 시인들의 「李杜」에 대한 이해는 그다지 심도가 있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元 辛文房은 “唐나라에서 杜甫를 본 받은 사람은 오직 唐彦謙 한 사람 뿐이다”²¹⁾라는 말을 했는데, 이를 황당 무계한 말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은 晚唐五代에 「李杜」의 정수를 꿰뚫어 보고 제대로 평가하거나 계승한 흔적이 그다지 많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

18) 韋穀 <才調集序>, “暇日因閱李杜集元白詩 其間大海混茫 風流挺特”

19) “穀生五代文敝之際, 惟以穠麗秀發救當時粗俚之習, 故錄多晚唐而不及少陵.” 傅璇琮·龔祖培, <才調集考>, 《唐代文學研究》第5輯,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4, 684쪽, 재인용.

20) 鄭健行, 《中國詩歌論稿》(香港: 新亞研究所, 1984), 141 쪽.

21) 辛文房, 앞의 책, “唐人效甫者, 惟彦謙一人而已.”

이다.²²⁾ 이런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면 晚唐五代의 詩壇이 「李杜」의 입김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나름의 개성을 지닌 창작활동이 유지되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元稹·白居易論

晚唐五代에는 「李杜」에 대한 논의보다 中唐 詩壇을 좌지우지했던 元稹과 白居易의 시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들은 元和 연간 초기에 <新樂府>, <秦中吟> 등 현실주의적 작품을 통해 ‘新樂府運動’을 전개한 사람들이다. 많은 시인들이 이에 호응하여 다량의 악부시를 창작하였는데, 그 대표적 인물로는 李紳(772~846), 張籍(765?~830?), 王建(751?~835?)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元稹과 白居易의 시는 후기로 가면서 詩風이 크게 바뀌었고, 이에 따라 晚唐五代의 시인들은 이른바 「元白體」의 정의와 계승 여부를 두고 의견의 대립을 보였다. 먼저 元稹과 白居易를 비판했던 사람들의 논리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해 그들을 옹호했던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논쟁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1) 元白 批判論

晚唐에 들어 元稹과 白居易의 비판에 앞장섰던 사람은 杜牧이었다. 그가 李戡의 묘지명을 통해 밝힌 주장을 읽어보자.

그가 지은 문장이 수백 편이지만, 仁義에서 벗어난 것에는 하나도 붓을 대지 않았다. 그는 “시라는 것은 노래부를 수 있고, 관악기로 퍼져나가고 현악기로 연주할 수 있어서 아녀자와 어린 아이들도 모두 외고자 한다. 나

22) 五代 사람인 王贊은 方干的 시집에 대한 서문에서 “杜甫의 시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子美之詩, 可謂無聲無臭者矣.)”고 말할 정도였다. 陳志誠, <晚唐人對李杜韓白詩的看法和評價>, 《唐代文學研究》第 輯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2, 538 쪽, 재인용.

라의 풍속이 박하고 후함을 시로 퍼뜨리며 마치 바람의 빠름과 같게 된다. 일찍이 元和 연간 이래로 元稹과 白居易의 시가 있었던 것을 마음 아파한 것은 纖細艷麗하고 굳세지 않아 단정한 선비나 전아한 사람이 아니면 대개 그것에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²³⁾

사실 이 글에 보이는 元白 비판론은《唐詩》를 편찬한 李戡의 견해를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 李戡이라는 사람은 “仁義에서 벗어난 글을 짓지 않았다”고 했으니, 정치교화에 도움이 되는 문학창작을 주장한 문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杜牧이 李戡의 묘지명을 쓰면서 그의 견해를 자세하게 소개했다는 것은 결국 杜牧의 생각이 그와 같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纖細艷麗하고 굳세지 못했다”는 元稹과 白居易의 시는 諷諭詩 또는 閑適詩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元和體」라 불리는 화려하고 염정적인 시를 말한다. 杜牧은 이러한 시가 풍속을 해쳤다고 비판한 것이다.

「元和體」가 어떤 성격의 시이기에 여기서 쟁점으로 부각되었을까? 白居易는 <余思未盡加爲六韻重寄微之>에서 自註하기를 “여러 사람들이 元稹과 白居易는 千字의 律詩를 짓고 있는데 간혹 그것을 「元和格」이라 불렀다”²⁴⁾고 하였다. 張碧波는 次韻하여 서로 酬答하면서 지극히 聲韻을 강구한 長篇排律과 酒宴의 광경을 읊은 자잘한 작품(여기에는 艷體詩도 포함된다)의 둘로 나누어 「元和體」를 설명한 바 있다.²⁵⁾ 적어도 현실주의적인 사회시 계통은 아니라는 말이다. 시는 정치 教化를 주로 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있는 논자들의 눈에 이러한 시들이 흡족할 수는 없었을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杜牧과 명칭되는 李商隱은 元稹과 白居易의 시에 대해 어떤

23) 杜牧, <唐故平盧軍節度巡官隴西李府君墓誌銘>, “所著文數百篇, 外於仁義, 一不關筆. 嘗曰: ‘詩者, 可以歌, 可以流於竹, 鼓於絲. 婦人小兒, 皆欲諷誦. 國俗薄厚, 扇之於詩, 如風之疾速. 嘗痛自元和已來有元·白詩者, 纖艷不逞, 非莊士雅人, 多爲其所破壞.’”

24) “衆稱元白爲千字律詩, 或號元和格.”

25) 高國興·莊鴻雁, <元和體與中唐詩歌>,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1993年 第3期, 125쪽. 재인용.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까? 李商隱에게는 杜牧처럼 직접적으로 「元白」을 언급한 글이 없지만, <獻侍郎鉅鹿公啓>를 통해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대저 글을 짓는 공교함은 뜻을 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비록 古今의 體制가 다르다고는 하나 聲律의 귀의처는 같습니다. 唐朝에 들어와 이러한 길이 더욱 성했습니다. 모두 편향적인 기교에 빠져 재주를 겸한 자가 드뭅니다. 비위를 배고 흐르는 물에 양치질하는 것은 枯槁하고 寂寞한 구절을 숭상한 것이며, 비늘에 매달리고 날개에 붙는 것은 驕奢하고 艷佚한 편장을 앞세운 것입니다. 李白과 杜甫를 추존하면 원망과 풍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沈佺期和 宋之間을 본받으면 綺靡함이 심합니다.²⁶⁾

이 글에도 「元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그렇다고 해서 「李杜」나 「沈宋」을 평가하고자 한 것도 아니다. 그들을 ‘추존하고 본받은’ 사람들에 대한 견해인 것이다. ‘李白과 杜甫를 추존하여 원망과 풍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沈佺期和 宋之間을 본받아 綺靡함이 심한’ 시인이라면 다른 아닌 「元白」이다.²⁷⁾ “元和 연간 이후로 글을 짓는데 있어서 …白居易에게서 淺切함을 배우고, 元稹에게서 淫靡함을 배웠다”²⁸⁾고 한 李肇(813 전 후)의 평과 “元白은 힘은 강하나 기는 잔약하다. 그래서 도시에서 값이 나갔다”²⁹⁾고 한 司空圖(837~908)의 말 등이 그것을 입증하는 예다. 李商隱은 이 글에서 ‘元白體’의 두 가지 특징, 즉 樂府體 社會詩의 ‘원망과 풍자’, 그리고 ‘元和體’의 ‘綺靡함’을 모두 지적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모두 ‘편향적인 기교’라고 비판했다.

흔히 李白과 杜甫를 병칭하는 말인 「李杜」를 「杜李」로 바꾸어 편자의 분명한 색깔을 나타냈던 顧陶의 《唐詩類選》은 「元白」에 대해서도 단호

26) 李商隱, <獻侍郎鉅鹿公啓>, “況屬詞之工, 言志爲最. …雖古今異制, 而律呂同歸. 我朝以來, 此道尤盛, 皆陷於偏巧, 罕或兼材. 枕石漱流, 則尚於枯槁寂寞之句, 攀鱗附翼, 則先於驕奢艷佚之篇. 推李杜則怨刺居多, 效沈宋則綺靡爲甚”

27) 謝思焯, <白居易與李商隱>, 《文學遺產》1996年 第3期, 30-31 쪽

28) 李肇, 《唐國史補》卷下, “元和以後, 學淺切於白居易, 學淫靡於元稹.”

29) 司空圖, <與王駕評詩書>, “元白力勍而氣孱, 乃都市豪估耳.”

한 입장을 취했다. 唐詩를 1,232수나 뽑으면서도 元稹과 白居易의 시는 일체 배제했던 것이다. 그는 서문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相國 元稹과 尚書 白居易 같은 경우는 한때 이름을 떨쳐 천하에서 '元白'이라 칭하며 배우는 자들이 모여들어 '元和詩'라 불렀다. 그들의 시집은 분량이 커 떼어낼 수 없어서 지금은 모두 수록하지 않는데, 대개 거기에는 은미한 뜻이 있다.³⁰⁾

어떤 시인이 창작한 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選集에 실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임에 틀림없다. 이에 대해 楊明과 王運熙는 顧陶의 選詩 기준이 政治教化에 도움이 되는 시를 위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元和體」의 流弊를 염두에 두고 그들의 시를 하나도 수록하지 않았다고 했다.³¹⁾ 顧陶가 말한 '은미한 뜻'이 바로 그런 것인지 단언하기 어렵다. 다만, 韋穀의 《才調集》에 元稹과 白居易의 시가 각각 57수와 19수 실려있고, 또 艷體詩도 그 가운데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역시 「元和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적으로 볼 때 開成 연간부터 大中 연간에 이르는 晚唐 初期에 일련의 시인들이 元和 연간부터 詩壇을 풍미했던 元稹·白居易의 「元和體」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하고 새로운 방향의 시를 모색하고자 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겠다.³²⁾

(2) 元白 擁護論

杜牧이 李戡의 견해를 빌어 元稹과 白居易를 통렬히 비판하고 나선데

30) 顧陶, <唐詩類選序>, “若元相國稹, 白尚書居易, 擅名一時, 天下稱爲元白, 學者翕然, 號元和詩. 其家集浩大, 不可雕摘, 今共無所取, 蓋微志存焉”

31) 楊明·王運熙, 《隋唐五代文學批評史》(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4), 642 쪽

32) 杜牧의 <唐故平盧軍節度巡官隴西李府君墓誌銘>은 開成 2년(837), 李商隱의 <獻侍郎鉅鹿公啓>는 大中 원년(847), 顧陶의 <唐詩類選序>는 大中 10년(856)에 각각 지어졌다. (吳在慶, 《杜牧論稿》(廈門: 廈門大學出版社, 1991), 256 쪽; 劉學鐸·余恕誠, 《李商隱文集編年校注》(北京: 中華書局, 2002), 第3冊, 1188쪽)

대해 이견을 제기한 사람은 皮日休이다. 그의 주장이 잘 드러나 있는 <論白居易薦徐凝屈張祜>를 읽어보자.

나는 일찍이 문장의 어려움은 시초의 어려움에 있다고 말했다. 元稹과 白居易의 마음은 教化를 세우는데 근본을 두고 이에 樂府의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에 뜻을 기탁하여 그것을 일러 '諷諭'라 하고 '閑適'이라 했던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큰 이름을 얻게 되자 당시의 문인들이 몰려들어 그것을 따랐다. 그 말을 스승 삼으면서 그 취지는 잃고 대개 가볍고 화려하거나 아름답고 고운 말이면 그것을 '元白體'라 불렀다. 두 사람이 망연자실하여 팔을 걷어붙이고 해명하였지만 습속은 이미 깊어져 단단하여 깨뜨릴 수 없었으니, 두 사람의 본심은 아니었다. 발원한 사람이 그랬던 것이 아니니,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³³⁾

皮日休는 “元稹과 白居易의 본심이 教化를 세우는데 근본을 두었다”고 긍정했다. 그런데 그것은 諷諭詩에 대해서라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閑寂詩에 대해서라면 다소 거리가 있고, 경박하고 화려한 艷情詩에 대해서라면 완전히 타당하지 못하다.³⁴⁾ 皮日休는 당시 사람들이 '교화를 세우는 데 근본을 둔 元白體'의 主旨에서 벗어난 아류 시인들을 들어 '元白'을 비난하는 데 큰 불만을 가졌던 것이다.³⁵⁾ 皮日休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黃滔(840~911)의 견해도 엇비슷하다.

당의 전기에 李白과 杜甫가 있었고, 후기에 元稹과 白居易가 있었으니, 정말로 큰 바다처럼 끝이 없었다. 그 아름다운 산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 33) 皮日休, <論白居易薦徐凝屈張祜>, “余嘗謂文章之難, 在發源之難也. 元白之心, 本乎立教, 乃寓意於樂府雍容宛轉之詞, 謂之諷諭, 謂之閑適. 既持是取大名, 時士翕然從之. 師其詞, 失其旨, 凡言之浮靡艷麗者, 謂之元白體. 二子規規攘臂解辯, 而習俗既深, 牢不可破, 非二子之心也. 所以發源者非也, 可不戒哉!”
- 34) 成復旺·黃保眞·蔡鍾翔, 《中國文學理論史》卷2(北京: 北京出版社, 1991), 223쪽.
- 35) 申寶昆, <皮日休文學思想管窺>, 《中國古典文學論叢》第7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 368쪽.

했다. 그러나 李嶽 등 諸賢들은 분바르고 눈썹 그린 것 같은 표현은 白居易의 죄라고 했다. …〈長恨歌〉에서 ‘오늘날 천하의 부모들이 아들은 중하게 여기지 않고 딸은 중히 여기게 되었네’라는 어귀는 남녀가 상도를 벗어나고, 음양이 그 이치를 벗어난 것을 풍자한 것이다. 그 뜻이 험하고 기이하며, 그 글은 평이하다. 소위 말한 사람에게 죄가 없고 듣는 사람은 스스로 경계할 만하다는 것이다.³⁶⁾

黃滔는 《全唐詩》에 200여 수에 달하는 시를 전하고 있는 晚唐 후기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시는 國風과 王澤에 근본을 두고 장차 그것으로 위를 풍자하고 아래를 교화하는 것이니,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어찌 시인이겠는가?”³⁷⁾라며 儒家의 詩教를 내세웠던 사람이다. 따라서 그가 공리주의적인 문학관을 바탕으로 諷諭詩를 즐겨 지었던 「元白」을 높이 평가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元白」 특히 白居易를 존중하는 입장은 張爲의 《詩人主客圖》에서도 잘 드러난다. 張爲는 晚唐 大中 연간(847~859)에 생존했던 사람이며 《詩人主客圖》는 中晚唐 84명의 시인을 6개의 계파로 분류했다.³⁸⁾ 이 책은 첫머리에 「廣大教化」란 계파를 소개하고 白居易를 主詩人으로 내세워 비중 있게 다뤘다. 張爲가 白居易의 대표작으로 뽑은 작품은 〈讀四詩 其四〉, 〈秦中吟 其二〉, 〈寓意詩 其一〉, 〈寓意詩 其二〉 등이다. 新樂府 50수 가운데 한 수도 거론하지 않은 것은 다소 의아하지만 「教化」를 중시하는 태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張爲의 견해에 동조한 사람으로 吳融이 있다. 그는 〈禪月集序〉에서

36) 黃滔, 〈答陳磻隱論詩書〉, “大唐前有李杜, 後有元白, 信若滄溟無際, 華嶽干天. 然自李嶽數賢, 多以粉黛爲樂天之罪, …至如長恨歌云; 遂令天下父母心, 不重生男重生女. 此刺以男女不常, 陰陽失倫, 其意險而奇, 其文平而易, 所謂言之者無罪, 聞之者足以自戒哉.”

37) 黃滔, 같은 글, “詩本於國風王澤, 將以刺上化下, 苟不如是, 曷詩人乎?”

38) 6개 계파의 명칭과 主詩人은 다음과 같다. 廣大教化(主: 白居易), 高古奧逸(主: 孟雲卿), 清奇雅正(主: 李益), 清奇僻苦(主: 孟郊), 博解宏拔(主: 鮑溶), 環奇美麗(主: 武元衡).

“그 후 白居易가 풍간하는 시 50수를 지었으니, 또한 한 때의 기이함과 빼어남이 지극한 말이다. 예전에 張爲가 《詩圖五層》을 지어 白居易를 ‘廣德大教化’의 주인으로 삼았으니 잘못됨이 없다”³⁹⁾고 했다. 「禪月」은 晚唐의 詩僧 貫休를 가리킨다. 何光遠의 《鑒誠錄》에 따르면 貫休의 시 천수를 묶어 《西岳集》이라 이름붙이고 吳融이 서문을 지었으며, 白居易가 「大教化의 주인」이라면 貫休가 그 다음이라는 논자들의 평이 있었다고 한다.⁴⁰⁾ 당시에 政教를 내세우는 詩論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元白」을 옹호한 대표적 인물인 皮日休와 吳融이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杜甫보다 李白을 중시했다는 사실이다. 정작 그들이 존중한 元稹과 白居易가 “시인 이래 杜甫와 같은 분은 없었다”⁴¹⁾거나 “(杜甫는) 고금을 꿰뚫고 격률이 자세하고 더없이 좋은 점에서 또 李白을 능가한다”⁴²⁾고 한 것과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다. 晚唐五代 시인들의 詩教觀念이 한계를 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한다. 許總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은 「元白」이 표방한 諷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대신 형식적인 면, 이를테면 諷諭詩는 樂府歌行體에 통속적인 시어를 많이 구사해야 한다는 통념 등에 얽매어 前人의 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⁴³⁾

「元白」에 대한 晚唐五代의 상반된 견해는 여러 가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李白의 낭만적인 시풍과 杜甫의 현실적인 시풍을 계승하여 ‘新樂府運動’을 전개하면서 中唐의 큰 흐름을 형성한 공로가 있다. 이러한

39) 吳融, <禪月集序>, “厥後白樂天爲諷諫五十篇, 亦一時之奇逸極言. 昔張爲作詩圖五層, 以白氏爲廣德大教化主, 不錯矣.” 「五層」이란 主, 上入室, 入室, 升堂, 及門의 다섯 등급을 가리킨다.

40) 何光遠, 《鑒誠錄》卷五, <禪月吟>條, “禪月大師貫休所吟千首, 吳融侍郎序之, 號曰《西岳集》, 多爲古體, 窮盡物情. 議者稱白樂天爲大教化主, 禪月次焉”

41) 元稹, <唐檢校工部員外郎杜君墓係銘>, “詩人以來 未有如子美者”

42) 白居易, <與元九書>, “至於貫穿今古, 翫縷格律, 盡工盡善, 又過於李.”

43) 許總, 앞의 책, 444쪽.

과정에서 시가 점차 庶民化하게 되었고, 일부는 지속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서민화된 시는 결국 詞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이에 반발한 杜牧과 李商隱 등은 艷體詩의 제재는 일부 취하면서도 지나치게 통속적이지는 않은 「士大夫의 시」로 유지하려 했던 까닭에 그들의 시를 비판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元白」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사회문제를 반영한 작품을 많이 남겼던 皮日休도 艷體詩는 쓰지 않았지만 문자유희에 가까운 ‘雜體詩’ 창작에 공을 들인 바 있다. 특히 登第한 이후 陸龜蒙과 주고받은 시는 결국 제2의 「元和體」에 다름 아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晚唐五代之 시인들은 「元白」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어떻든 그들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3. 李賀論

中唐의 시단에서 독특한 개성을 선보였던 대표적인 시인으로 李賀(790~816)가 있다. 그는 李白이 한껏 끌어올린 낭만주의적 詩風에 바탕을 두고 韓愈와 孟郊의 수법을 가미하여 상상력 넘치는 환상적 세계를 연 「天才型」 시인으로 평가된다. 그의 개성적인 창작활동은 동시대 또는 후대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어, 戴叔倫·韓愈·張碧·沉亞之·無可·齊己·杜牧·李商隱·陸龜蒙·皮日休 등 20여 명에 달하는 唐代 시인들이 그의 시에 관심을 표명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太平廣記》에 인용된 唐 張固의 《幽閑鼓吹》가 소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먼저 李賀의 시적 재능을 알아보고 높이 평가한 인물은 韓愈이지만⁴⁴⁾, 李賀의 시 세계를 체계적으로 논한 것은 杜牧이 처음이다. 杜牧이 李賀가 세상을 뜨고 13년 뒤에 엮어진 《李賀集》에 쓴 서문을 읽어보기로 하자.

44) 《太平廣記》卷173, “李賀以歌詩謁吏部韓愈. 時爲國子博士分司. 時送客出歸極困. 門人呈卷, 解帶旋讀之. 首篇雁門太守行云: ‘黑云壓城城欲摧, 甲光向日金鱗開.’ 却揮帶, 急命邀之.”

중실의 후손인 李賀는 자가 長吉이며, 元和 연간에는 吏部尙書 韓愈도 그의 시가를 매우 칭찬했다. 이어지는 구름과 안개도 그의 시가의 자태라 하기 부족하고, 아득히 흘러가는 물도 그의 시가의 정감이라 하기 부족하며, 넘쳐흐르는 봄빛도 그의 시가의 화합이라 하기 부족하고, 맑고 깨끗한 가을빛도 그의 시가의 품격이라 하기 부족하다. ……대체로 <離騷>의 후예로서 이치는 비록 못 미친다 하나 辭彩는 간혹 그것을 능가한다. ……그는 이전의 일들을 탐색하는 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고금에 걸쳐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일을 심히 한탄하곤 하였으니, 예컨대 <金銅仙人辭漢歌>와 <補梁庾肩吾宮體謠>는 사정과 형편을 탐구하여 얻고, 늘 필묵으로 묘사하던 常規에서 벗어나 있어서 또한 그것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 李賀는 27년을 살고 죽었다. 세상에서 다들 말하기를 “李賀가 죽지 않았더라면 짐차 이치를 더하여 <離騷>를 그의 하인으로 부렸을 텐데” 하였다.⁴⁵⁾

杜牧은 李賀의 시를 총체적으로 평하면서 주로 세 가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첫째는 李賀의 시에 情調와 風格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갖가지 비유를 들어 李賀詩의 특성을 개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둘째는 <離騷>의 영향을 받아 “이치는 비록 못 미친다 하나 辭彩는 간혹 그것을 능가”한다고 하여 <離騷>와의 관련성을 언급한 점이다. 李賀 자신도 여러 차례 楚辭를 배웠음을 밝힌 바 있고⁴⁶⁾, 후대의 평자들도 李賀와 楚辭와의 관계를 제기한 杜牧의 관점에 대부분 찬동한다.⁴⁷⁾ 마지막으로 제제의 선

45) 杜牧, <李賀集序>, “皇諸孫賀, 字長吉, 元和中韓吏部亦頗道其歌詩. 雲烟綿聯, 不足爲其態也; 水之滔滔, 不足爲其情也; 春之盎盎, 不足爲其和也; 秋之明潔, 不足爲其格也. ……蓋<騷>之苗裔, 理雖不及, 辭或過之. ……賀能探尋前事, 所以深歎恨今古未嘗經道者, 如<金銅仙人辭漢歌>·<補梁庾肩吾宮體謠>, 求取情狀, 離絕遠去筆墨畦徑間, 亦殊不能知之. 賀生二十七年死矣. 世皆曰: ‘使賀且未死, 少加以理, 奴僕命騷可也.’”

46) “咽咽學楚吟, 病骨傷幽素.”(<傷心行>); “斫取青光寫楚辭, 膩香春粉黑離離.”(<昌谷北園新筍四首其二>); “鄭公鄉老開酒樽, 坐泛楚奏吟招魂.”(<南園>)

47) 《雪浪齋日記》, “李長吉·玉川子詩皆出於離騷”; 王文祿《詩的》, “法離騷多驚人句.”; 李重華《貞一齋詩話》, “李長吉從楚辭發源, 天才獨出, 後人何得效顰.”; 王琦《李長吉詩歌匯解》, “長吉下筆, 務爲挺拔, 不屑作經人道語, 然其源實出於楚騷.”

택이 기이하고 참신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杜牧은 李賀詩의 부족한 점으로 「이치(理)」를 들었다. 위의 글에서 詠史詩의 일종인 <金銅仙人辭漢歌>를 언급하면서 “그것을 알기가 대단히 어렵다(殊不能知之)”고 한 말도 역시 「이치의 부족」과 관련된 말로 보인다.⁴⁸⁾ 요컨대 말은 화려하지만 일관된 논리를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杜牧은 <答莊充書>에서 “만약 뜻이 먼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文彩와 辭句 만으로 앞을 두르고 뒤를 받친다면 말이 많아질수록 이치가 어지러워져, 마치 시장바닥에 들어가면 우루루 몰려있어 누가 누군지 모르다 저녁이 되면 흩어지는 꼴과 비슷할 것입니다”⁴⁹⁾라 하여 「뜻(意)」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李賀의 시에 대해 「이치」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은 그의 시가 「뜻」보다 「말」이 앞서는 폐단이 있음을 지적한 것이라 하겠다.⁵⁰⁾ 다만 杜牧은 그가 더 오래 창작활동을 펼쳤다면 연륜이 쌓이면서 「이치의 부족」을 극복하고 <離騷>보다 높은 성과를 거두었을 것이라며 부정적 평가의 수위를 낮추었다.

李商隱의 <李賀小傳>은 李賀의 전기로서 杜牧의 <李賀集序>와 함께 <唐書·李賀傳>의 기초 자료로 쓰였던 글이다.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 그의 죽음을 애도한 대목을 읽어보도록 하자.

아이! 하늘은 푸르고 높는데 그 위엔 과연 上帝가 있는가? 상제는 과연 苑圃·宮室·觀閣같은 놀이거리가 있는가? 만약 진실로 그러하다면 하늘은 높고 아득하고 상제는 존엄하니, 또한 이 세상을 능가하는 인물과 文采

48) Robert Ashmore, <楚辭的啓示 略述李賀詩歌創作的巫心態>(《文學評論》1993年 第4期), 101쪽.

49) 杜牧, <答莊充書>, “苟意不先立, 止以文彩辭句繞前捧後, 是言愈多而理愈亂, 如入闐闐, 紛紛然莫知其誰, 暮散而已.”

50) 宋 張戒 역시 <歲寒堂詩話>에서 “李賀에게 李白의 詩語는 있었지만, 李白의 才주는 없었다. 李白은 뜻을 위주로 하여 文彩가 부족한 결점이 있었고, 李賀는 文詞를 위주로 하여 이치가 부족한 결점이 있었다.(李賀有太白之語, 而無太白之才. 太白以意爲主, 而失於少文; 賀以詞爲主, 而失於少理)”며 杜牧이 「이치」가 부족한 것을 李賀詩의 단점으로 지적한 데 동조하였다.

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거늘, 어찌 유독 李賀에게만 마음을 써 그를 오래 살지 못하도록 했더란 말인가? 아! 또한 아마도 세상의 이른바 재주있고 기이한 사람은 비단 지상에만 적은 것이 아니라 천상에도 역시 많지 않은 것일까?⁵¹⁾

李商隱은 李賀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시인으로 알려져 있다. 李商隱의 시 <無愁果有愁曲北齊歌>·<射魚曲>·<燒香曲> 등은 모두 李賀의 시풍과 흡사한 작품들이고, <效長吉>시는 아예 李賀를 본뒀음을 詩題에 밝히고 있기도 하다.⁵²⁾ 위의 <小傳>에는 李賀의 시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뛰어난 재주를 다 펼쳐보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李賀의 운명을 안타까워하는 대목은 분명 李商隱이 그의 시를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 있었음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陸龜蒙은 <書李賀小傳後>라는 글을 지어 李商隱의 <李賀小傳>을 읽고 난 느낌을 개진하였다. 孟郊에 대해 언급하고 난 다음 단락을 보자.

내가 들건대 마구 사냥하고 낚시하는 것을 일러 하늘의 사물을 해친다고 한다. 하늘의 사물이라면 해칠 수도 없는 것인데, 또 가져다 쥐고 새겨 그 情狀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짝이 틀 때부터 말라 죽기에 이르기까지 숨어있지 못하게 만든다면 하늘이 별을 주기에 이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李賀는 요절하고 孟郊는 궁핍하고 李商隱은 관직을 조정의 명단에 내걸지 못했으니, 바로 이 때문이로다! 바로 이 때문이로다!⁵³⁾

陸龜蒙은 어부와 사냥꾼이 마구 죽이고 잡는 것은 하늘의 사물을 멋대

51) 李商隱, <李賀小傳>, “嗚呼! 天蒼蒼而高也, 上果有帝耶? 帝果有苑圃·宮室·觀閣之玩耶? 苟信然, 則天之高邈, 帝之尊嚴, 亦宜有人物文采愈此世者, 何獨眷眷於長吉而使其不壽耶? 噫! 又豈世所謂才而奇者, 不獨地上少, 即天上亦不多耶?”

52) 吳調公, 《李商隱研究》(臺北: 明文書局, 1988), 212-217 쪽

53) 陸龜蒙, 《甫里集》卷18, <書李賀小傳後>, “吾聞涇政漁者, 謂之暴天物, 天物既不可暴, 又可扶適刻削, 露其情狀乎? 使自萌芽至於枯死, 不得隱伏, 天能不致罰耶? 長吉夭, 東野窮, 玉溪生官不掛朝籍而死, 正坐是哉! 正坐是哉!”

로 낭비하는 것이며, 그윽한 것을 찾고 세미한 것을 들춰내 원래 숨겨져 있는 物狀을 폭로해내는 사람은 모두 하늘의 별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李賀가 요절하고 孟郊가 궁핍하게 굶주리고 李商隱의 관직이 낮았던 것이 모두 그 예라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王運熙의 지적대로 陸龜蒙이 겉으로는 李賀, 孟郊 등이 天物의 情狀을 가져다 깎고 새겨 액운을 만났다 질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심하게 조탁하는 詩風에 讚賞과 긍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⁵⁴⁾ 이것은 齊己가 <讀李賀詩集>이라는 시에서 “赤水에는 정수가 될 뛰어난 것이 없고, 荊山 또한 마르고 불품 없다.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구슬과 무지개 옥을 李賀가 품고 있구나”⁵⁵⁾라고 한 것과도 비슷한 논조이다.

張爲의 《詩人主客圖》와 같이 李賀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평가를 내린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張爲는 孟雲卿을 주인으로 하는 「高古奧逸」계파에 「上入室」 시인인 韋應物 다음의 「入室」 시인으로 杜牧·李餘·劉猛·李涉·胡幽貞 등과 함께 李賀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李賀에 대한 晚唐五代之 평가는 「李杜」나 「元白」과 달리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지 않고 긍정하는 입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특히 韋莊이 李賀를 비롯해 皇甫松·李群玉·陸龜蒙 등과 같이 中晚唐의 시인들 중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에게 進士를 추서하자는 상주문을 올리면서 “모두 기이한 재주가 있어 아름다운 시구와 맑은 시어가 두루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⁵⁶⁾고 찬미한 것이나, 《舊唐書》의 편자가 李賀의 전기에서 그를 칭송하여 “문학적 구상이나 체제와 기세는 겹겹의 바위나 가파른 절벽과도 같이 만 길 높이 솟았다. 당시의 문인들이 그것을 따라 배우고자 하였으나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⁵⁷⁾고 한 것은

54) 王運熙, 앞의 글, 54쪽.

55) 齊己, <讀李賀詩集>, “赤水無精華, 荊山亦枯槁. 玄珠與虹玉, 璨璨李賀抱. 清晨醉起臨春臺, 吳綾蜀錦胸襟開. 狂多兩手掀蓬萊, 珊瑚掇盡空土堆.”

56) 王定保, 《唐摭言》卷10, “韋莊奏請追贈不及第人近代者 ……皆有奇才, 麗句清辭, 遍在時人之口.”

57) 《舊唐書·李賀傳》, “文思體勢如重岩峭壁, 萬仞崛起, 當時文士從而效之, 無能

晩唐五代에 李賀의 영향력이 「李杜」와 「元白」을 능가했음을 짐작하게 해 준다.

Ⅲ. 結論

이상에서의 논의와 같이 본고에서는 李白과 杜甫, 元稹과 白居易, 李賀 등 晩唐五代의 시인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작가들에 대한 晩唐五代의 평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盛唐을 대표하는 두 시인인 李白과 杜甫에 대한 평가이다. 晩唐五代의 시인들은 대체로 「李杜」를 공히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소 정도를 달리 했다. 그러나 그것이 李白과 杜甫의 詩世界를 정확히 통찰하고 그 장점을 흡수하려 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내용보다 형식적인부분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近體詩를 좋아하는 시인은 杜甫를 내세우고 歌行體를 좋아하는 시인은 李白을 내세우는 사례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몇몇 唐詩選集에서 「李杜詩」를 選錄한 결과를 보더라도 두 시인의 精華가 晩唐五代까지는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다음은 元稹과 白居易에 대한 찬반 양론이다. 「元白」에 대한 견해가 양극으로 치달았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작품세계가 본래 서로 상반되는 성격의 「新樂府」와 「元和體」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晩唐五代의 시인들은 한 부분만을 가지고 전체의 성과를 모두 부정하여 비판하거나 모두 긍정하여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고, 「李杜」에 대한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내용보다는 樂府體인지 律體인지의 형식 문제로 귀결시키는 한계를 보였다. 결국 「元白」을 비판했던 쪽이나 옹호했던 쪽이나 가릴 것 없이 「新樂府」보다는 「元和體」의 영향을 많이 받아 晩唐五

仿佛者.” 《舊唐書》는 五代 시기인 940년에 편찬을 시작하여 943년에 완성된 책이다. 여기에는 李白과 杜甫의 시에 대해 특별히 편찬자의 평이 없어 李賀의 경우와 대조된다. 100여 년 뒤 宋代에 나온 《新唐書》는 그와 달리 편찬자가 「李杜」의 성과를 찬미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代에는 艷情詩와 唱和詩가 발달하게 되었다.

끝으로 李賀에 대한 평가이다. 대다수의 評者들이 그의 시가 지나치게 「神怪함」을 추구하는 경향을 지적하면서도 詩作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놓은 공로를 굳이 부인하지 않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中唐 韓孟詩派의 계승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평이함을 추구했던 通俗詩派에 대한 반발로도 이해할 수 있다. 「李杜」나 「元白」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 했던 시인들도 李賀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보이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점은 다분히 특이한 표현과 기교를 중시했던 晚唐五代 시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參考文獻〉

- 高國興·莊鴻雁, 〈元和體與中唐詩歌〉, 《中國古代近代文學研究》 1993年 第3期
- 卞孝萱, 〈《唐詩類選》是第一部尊杜選本〉, 《學林漫錄》 8集, 1983
- 傅璇琮·龔祖培, 〈才調集考〉, 《唐代文學研究》 第5輯,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4
- 謝思煒, 〈白居易與李商隱〉, 《文學遺產》 1996年 第3期
- 申寶昆, 〈皮日休文學思想管窺〉, 《中國古典文學論叢》 第7輯,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9
- 王運熙, 〈晚唐文學批評三題〉, 《文學遺產》 1992年 第5期
- 張金海, 〈杜牧的文學思想〉, 《文學遺產》 1983年 第3期
- 陳志誠, 〈晚唐人對李杜韓白詩的看法和評價〉, 《唐代文學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2
- Robert Ashmore, 〈楚辭的啓示: 略述李賀詩歌創作的巫心態〉, 《文學評論》 1993年 第4期
- 鄺健行, 《中國詩歌論稿》, 香港: 新亞研究所, 1984

- 成復旺·黃保真·蔡鍾翔,《中國文學理論史》,北京:北京出版社,1991
楊明·王運熙,《隋唐五代文學批評史》,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4
吳在慶,《杜牧論稿》,廈門:廈門大學出版社,1991
吳調公,《李商隱研究》,臺北:明文書局,1988
劉學鍇·余恕誠,《李商隱文集編年校注》,北京:中華書局,2002
李道英,《中國文學史》,北京: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8
張毅,《中國古代文學發展史》,天津:南開大學出版社,2003
許總,《唐詩史》,南京:江蘇教育出版社,1995

〈中文提要〉

伴隨着詩歌理創作的發展,晚唐五代時期討論詩歌的形式、評論前代詩人的成果的著作比較繁富。司空圖的《二十四詩品》專門論述了詩歌風格,還有張爲的《詩人主客圖》、齊己的《風騷旨格》、韋莊的《又玄集》與韋穀的《才調集》等等都是這一時期出現的詩歌理論專著或唐詩選本。也有一些篇幅較短的論述,例如杜牧的〈李賀集序〉、吳融的〈禪月集序〉、黃滔的〈答陳礪隱論詩書〉、徐鉉的〈蕭庶子詩序〉等等。這些文章雖沒有完整的理論體系,但值得研究的內容亦是豐富。可是,我認爲晚唐五代詩歌理論方面的研究,還未得到充分的關注與深入的分析。特別是“李杜”、“元白”、李賀等大名鼎鼎的盛中唐幾個詩人對晚唐五代的影響比較深遠,我們應該了解一下晚唐五代詩人對他們一些前代詩人的看法。

那麼,晚唐五代詩人怎樣接受“李杜”、“元白”、李賀的成果,通過詳細的考察得到的結論如下:第一,晚唐五代詩人一般竝重“李杜”,不過按個個詩人具體的見解,也不無“抑李揚杜”或“抑杜揚李”的偏重態度。我覺得,他們對“李杜”的了解跟宋代以後不太一樣,確有一定的時代性的界限,因此不能全面接受“李杜”的骨髓或精華。第二,晚唐五代詩人對“元白”的贊反兩論并不相上下。批評“元白”的人指斥“元和體”失於通俗,讚美“元白”的另一個人重視“元白”的詩能

夠反映出來社會現實。兩個集團話雖如此，實際上反對論者也喜歡“元和體”的艷情主題，贊成論者也喜歡“元和體”的唱和方式。我們應要注意，這一點意味着“元白”對晚唐五代詩人的影響要比我們想像的更廣泛。第三，無論屬於哪一個流派，晚唐五代詩人都贊賞李賀詩的“神怪”。從這種現象，我們可以知道不但一些晚唐五代詩人努力繼承“韓孟”奇險詩派，而且大多數詩人非常重視奇特的表現與瑣屑的技巧。

주제어 : 晚唐五代, 詩人論, 李杜, 元白, 李賀

